

傳記속에 재현된 청대 후기의 “才女” 이미지와 그 의미

- “家學” 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최수경*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才女 이미지의 역사적 변천
3. 재녀관념의 변화와 그 의미: “文識性의 저주”로부터의 탈피
4. “家學”문화와 재녀 이미지의 관계, 그 이상과 현실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말

청대 후기¹⁾ 여성텍스트의 출판과 문학 활동의 급증은 세계문학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明末 이후 淸末에 이르는 300여년은 여성문학사의 전성기로 손꼽히기는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청대 후기만큼 여성문학사에서 可視的인

* 숙명여대 중어중문과 강사

1) 중국사나 중국문학사에서 일반적인 청 후기의 시작을 184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 설정한 청 후기는 건륭 후기, 18세기 말 이후를 지칭한다. 건륭 후기 이후 嘉慶, 道光 연간에 이르는 6,70여년은 고전 여성문학의 최전성기이며 이는 士人 가정 여성들의 문학 문화(독서, 필사, 출판, 문학사단 등)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고찰하는 대상에 따라 시대 분기는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일반적인 청 후기의 시대 경계를 따르는 대신 《吳中十子詩鈔》가 출간된 1789년 이후 100여년간을 여성문학사의 청 후기로 설정하였다.

시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외면적인 발전과 더불어 여성 담론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 중 매우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른바 “才女”, 독서를 통해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문학적 글쓰기를 비롯하여 각종 기예에 뛰어난 전통시기의 지식인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女子無才便是德”이라는 경구가 전통 시기 여성의 文識性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성의 재능에 대한 담론 역시 전통 시기 내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일찍이 여성의 문학적 재능과 불운한 운명을 동일시하는 명말청초의 지배적인 여성 담론을 상세히 논증하며,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불안감을 “문식성의 저주”라고 표현한 바 있다.²⁾ 본고는 이전 연구의 후속적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는 재녀들을 이미지화한 청 후기의 傳記 기록을 통해 여성의 지식과 글쓰기, 교육에 관한 청 사회의 변화하는 시각들을 포착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지칭하는 “전기”란 정식 行狀 혹은 傳 형식으로 쓰인 것도 있고 序跋文 속에 여성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문의 서술자들은 여성 인물을 묘사할 때, 종종 의식적으로 “삼종”관계의 틀 속에 놓여 있는 여성이미지를 부각시키곤 하였다. 이 여성이 글쓰기나 학문에 뛰어났다 해도 전기를 쓰는 이들은 예외 없이 그녀의 딸, 아내, 며느리로서의 이미지만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혼인 후의 글쓰기는 모든 의무를 마친 뒤에야 간간히 틈을 내어 했다는 식의 이러한 서술은 여성 작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서술 방식이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여성 전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전통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유행하던 이른바 “才德相悖論” 역시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의 형성 배경이 되었다.³⁾ 또한 이는 덕을 재보다 중시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인물 품평 방식과도 관련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청대 후기로 들어서면서 여성작가의 전기는 “才德의 조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된다. 여기서의 재능은 말 그대로 타고난 자질일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문학적 추구와 욕망도 함께 의미한다. 이 시기 규수들에게

2) 줄고, <명말청초 여성의 여문활동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 독서행위를 중심으로>, 《중국어 문학논집》 제40집, 2006.

3) 王力堅, 《清代才媛文學與文化考察》, 台北: 文津出版社, 2006. p. 2.

가족 구성원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정의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 ‘才女’라는 점에 서, ‘才’는 바로 이 여성의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德은 삼종관계로 대표되는 가정 속 인물 질서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가사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지칭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기문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의 여러 가지 양상 중에서, 여성의 재능이 발현되는 경로와 방식의 변화, 그리고 여성 교육 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기문은 실존 인물에 바탕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문헌 자료 자체의 특성상, 묘사된 여성들의 형상은 당시 사회의 현실상황의 구체적인 반영이라기 보다는, 서술자가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 이미지에 가까운 경우도 많다. 더구나 남녀를 불문하고, 전기 기록자는 종종 전통적인 성별 규범에 피기록자의 생애를 끼워 맞추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묘사한 여성들이 당시의 현실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이를 통해 “재녀” 혹은 “글 쓰는 여성”에 대한 당시 사회의 기대와 상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성 담론의 시대적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다. 전기문은 당시 “글 쓰는 여성”을 재현한 자료가 가장 많이 포함된 서술 양식이다.

여성의 재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대 문화비평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초기의 여성이미지 연구는 매체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반영 가설을 따르고 있다. 이 가설은 재현된 이미지들이 현실을 왜곡하거나 반영하면서 현실과 직접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맺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정형화된 행동을 가르치고 확대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월터스는 이에 대해 여성의 이미지 보다는 “이미지로서의 여성”이 구성되는 방식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 전통사회의 여성을 서술한 傳 혹은 行狀은 무수한 스테레오타입을 재생산해내고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성은 결코 하나의 이미지로 재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정 시공간에서 사람들이 소비했던 “이미지로서의 여성”은 재현의

4) 수잔나 D.월터스/김현미 등 역.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99, pp. 46-71.

사실성과는 별도로 상당한 문화적 중요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형화된 이미지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구체적인 양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된 이미지가 구성되는 맥락에도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실재하는” 여성들을 탐색하는 작업보다 훨씬 가치 있고 효과적인 일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여성을 “사실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才女 이미지의 역사적 변천

역사적으로, 문헌에 묘사된 가장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는 《列女傳》에서 찾아볼 수 있다. 劉向(B.C.77-BC.7)이 편찬한 최초의 여성전기인 《열녀전》은 근대 이전의 중국에서 뿐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에 일종의 여성 이미지의 전범을 수립한다. 물론 이러한 이미지들은 상당 부분 당시의 통치 계급의 도덕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⁵⁾ 《열녀전》의 이미지는 현실 속의 여성생활 속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적어도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는, 여성은 “母儀”를 갖추거나 “賢明”하거나 “節義”로움을 증명해야만 공식적으로 내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열녀전의 분류는 사실상 근대 이전까지 여성들을 지배한다. 그런데 문제는 《열녀전》의 분류에는 이른바 “才藝”에 관한 범주가 없었다는 점이다.⁶⁾ 여성은 덕, 그것도 상당 부분 성별화된 ‘여성의 덕’으로써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고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때문에 지식여성 혹은 글 쓰는 여성의 모범

5) 박영희에 의하면 《열녀전》은 일종의 역사서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보다는 전형적인 여성상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서사적 요소가 正史보다 더 많이 첨가되어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들로부터 그 허구성과 비논리성을 비판받기도 하였다.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편, 《동아시아여성의 기원 -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제2장 <열녀전의 구성과 의미>, 이화여대 출판부, 2002년)

6) 유향의 《열녀전》은 총 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권의 명칭은 <母儀傳>, <賢明傳>, <仁智傳>, <貞順傳>, <節義傳>, <辨通傳>, <尊養傳>이다. 유향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여성을 이상화했을 뿐 재능 있는 여성은 중시하지 않았다.

이자 원형인 班昭는 사실상 그녀의 학문이나 문학적 성취보다는 《女誡》를 통한 전통 성별 이념의 공고화로 인한 공로를 더욱 인정받게 된다. 물론 魏晉 시기에 이르러 才性論의 대두와 더불어 《世說新語》의 <賢媛>과 같이 여성의 재능에 중점을 둔 여성이미지도 등장한다.⁷⁾ 이 시기 ‘詠絮’로 상징되는 재녀의 원형 謝道韞은 《晉書》 <列女傳>에서 “有才辯”이라는 평가와 함께 유명한 어린 시절의 고사 속에 등장한다. 열녀전의 분류와 비교하면 물론 개인으로서의 재능에 주목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열녀전》 ‘變通’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본격적으로 여성 개인의 문학적 재능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명 중엽 이후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시기부터 여성에 대한 분류 역시 보다 다양화되기 시작한다. Dorothy Ko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분류의 境界를 새롭게 정의내리기 시작한다. 그녀의 소개에 의하면, 16세기말의 문인 鄧志謨는 여성 고사를 열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 列女, 賢女, 才女, 悍婦, 美女, 征婦, 妓女, 歌妓, 舞妓와 商婦가 그것이다.⁸⁾ 물론 이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분류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분류 방식 변화 뒤에는 어떤 것이 훌륭한 ‘여성다움’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변화, 즉 덕 뿐만 아니라 문학적 재능, 심지어는 미모 역시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청대에 들어서면서 명말의 다양했던 표준은 다소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본원적인 가치가 德에 있다는 믿음은 여전히 강력했고, 다른 자질에 비해 문학적 재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다. 청 중엽으로 접어들면서 심지어는 지방지와 같은 공식적 기록물마저도 문학적 재능을 지닌 여성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할애하기 시작한다. 청말에 편찬된 지방지 《丹徒縣志》를 보면 “재를 중시하고 덕을 가볍게 본 것은 아니다(非重才而輕德也).”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才藝’條를 ‘節烈’조 앞에 배치시킴으로써 이 시기에 여성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얼마나 큰 진폭이 있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한다.⁹⁾ ‘재예’조에 등장한 여성들은 대부

7) 《世說新語·賢媛》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재능과 婦德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梅家玲의 <依違于 婦德與才性之間-《世說新語·賢媛篇》의 女性風貌> (王金玲/林維紅主編《性別視角：文化與社會》,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참고.

8) Dorothy Ko,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 Century China》Stanford Univ. Press, 1994, p. 116.

분 시인들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列女〉 편에 나오는 다른 항목들, 예를 들어 ‘賢孝’나 ‘節烈條’등에서는 “劉江氏穆之妻”, “李蔣氏名顯妻”등과 같이 친정, 시댁의 성과 남편 이름으로써 표기되는 데 비해 오직 ‘재예’조의 여성들만은 대부분 여성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물론 지방지의 기록은 다른 전기문에 비해서 유독 전통적인 성별 규범과 가치를 강조하고 사상적 보수성과 교훈성이 두드러진다. 隨園女弟子 중 하나인 여시인 廖雲錦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왕창은 (시집에) 서문을 다음과 같이 썼다: ……(료운금은) 여자의 말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수하여 시적 재능으로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 (왕창이) 말하기를: 운금은 일찍이 시어머니를 위해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인 적이 있다. 지극한 행실이 시적 성취에 가려져서는 안 되므로 (덕과 재능)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¹⁰⁾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장 공적이고 보수적인 기록물에서조차 삼종관계 속의 여성뿐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재녀’의 존재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관념상의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여성들의 글쓰기 문화가 이미 사회에 확고히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녀들의 문화를 관망의 시각으로 접수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3. 재녀관념의 변화와 그 의미: “文識性的 저주”로부터의 탈피

청 후기의 전기 편찬자가 묘사한 여성작가의 어린 시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들의 문학적 조숙성이다. 편찬자들은 모두 그녀

9) 《丹徒縣志》는 嘉慶연간 본부터 “列女” 항목 아래에 단독으로 “才藝條”를 만든다. 이른바 “才藝”란 “能文能武皆謂之才”(宋梁夫人條)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문학적 재능 위주로 기술된다. 이러한 분류법은 이후에도 계승된다.

10) 王昶序之曰: 守內言不出之訓雅, 不欲以才藝名. ……云: 雲錦嘗姑病割股, 至行不欲以詩掩, 故并著之.”《青浦縣志》, 〈列女〉篇, “才藝條, 光緒5年(1879) 尊經閣本 影印本.

들을 매우 영리하고 재능 있는 소녀들로 그리고 있다. 이는 매우 일반적인 서술 모식인데 도광 연간의 대표적인 여성작가 겸 편집자인 汪端(1793-1839, 자 允庄, 호 小韞)의 전기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왕단은 하늘에서 총명함을 받았다. 일곱 살에는 〈춘설시〉를 읊었다. 독자들은 (이 시기가 사도온이 읊었던) 〈柳絮〉시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춘설시는 류서시를) 모방한 작품이므로 (사도온을 쫓아서) 소온이라고 이름하였다. (宜人聰穎天授, 七歲賦春雪詩, 讀者謂不減柳絮, 因風之作因以小韞呼之)¹¹⁾

소녀의 시적 재능에 대한 서술은 역대로 《世說新語》의 사도온의 고사에서 영향 받은 바 크다. 사도온의 “유서” 고사는 젊은 여성의 재능을 상징하는 일종의 원형적 모티브로 작용한다. 이 고사는 소녀의 문학 재능을 나타낼 뿐 아니라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주의할 것은 사도온과 같은 어린 여성들을 호뭇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성(주로 나이가 많은)들의 존재이다. 수원여제자의 하나인 孫雲鳳 역시 어린 시절 어느 손님에게서 자신의 시적 재능을 인정받은 고사로 유명하다. 여덟 살이 된 그녀는 화답하기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거침없이 和韻한다.¹²⁾ 원매와 같은 남성 문사들은 조숙한 소녀들을 매우 대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록한다. 만약 이 소녀들을 인정해 주는 남성들의 시선이 없다면, 신동 소녀의 존재는 상당 부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 시절의 조숙한 시적 재능의 묘사는 비단 청 후기의 여성작가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숙성’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다. 남성들에게 있어, 이러한 조숙한

11) 胡敬〈汪允莊女史傳〉, 王端《自然好學齋詩集》, 同治13年(1874)刊本.

12) “杭州孫令宜觀察, 余世交也. 女公子雲鳳, 幼聰穎, 八歲讀書, 客出對云: 關關雎鳩, 卽應聲曰: 嚶嚶鳴雁. 觀察大奇之.” (袁枚《隨園詩話》卷二)

재녀 이미지는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때로 그녀들은 남성들 마음 속의 이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대상이기도 하다. 조숙한 재녀에 대한, 더 나아가서 여성의 글쓰기와 독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내 모순되고 복잡한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사람들이 종종 여성의 재능과 요절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康正果는 “조숙한 재능을 가졌으나 요절한 재녀들이 여시인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¹³⁾”고 말한 바 있지만, 사실 재능과 요절 사이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현실과의 관계가 어떻게 간에, 역대 여성작가들과 관련된 담론 가운데 조숙한 재능과 요절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태도는 여성작가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 명말의 문학가인 葉紹袁(1589-1649)은 열일곱의 나이로 요절한 딸 小鸞을 회고하면서 “정말로 빼어난 영기이니…… 조물주의 시기가 어찌 없겠는가?(真是千秋靈慧…… 能无造物之忌乎?)”라 한탄한다. 그는 딸의 재능과 요절을 연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¹⁴⁾ 쟁씨의 이러한 생각은 바로 당시 유포되고 있던 “여자는 재주 없는 것이 덕이다(女子无才便是德)”라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¹⁵⁾ 이후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닌 여성이 요절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고 글 쓰는 여성 역시 하늘이 내린 선물과 저주를 동시에 지닌 이중적 이미지로 전환되어 간다.

이러한 생각은 물론 청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대 후기 이후 요절 여성작가에 대한 해석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건륭, 가경 연간의 유명한 학자 겸 문인인 孫星衍(1753-1818)의 아내인 王采薇(1753-1776)가 24세의 젊은 나

13) 康正果, 《風騷與艷情》,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8, p. 34.

14) 葉紹袁編《午夢堂集》, 北京: 中華書局, 1998, p. 355.

15) 陳東原에 의하면 “女子無才便是德”이라는 말의 유행은 명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中國婦女生活史》, 北京: 商務印書館, 1925, pp. 188-202.

이로 사망한 뒤 그녀의 친정아버지인 王光燮은 딸을 위해 〈亡女王采薇小傳〉을 쓴다. 우리는 이 전기문을 통해 당시 적지 않은 이들이 여전히 명말 이래의 “才女薄命論”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 시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왕광섭은 회상하기를 왕채미의 생모가 그녀를 임신했을 때 일찍이 꿈속에서 “달 옆에 별 빛이 찬란(月旁星光熠熠)”한 모습을 보았다 하였다. “자라나서는 용모 단정하고 아름다운 성품에 부드러움을 갖추었다. 文史에 심취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특히 해서체에 능하였고 시 읊는 것을 좋아하였다(既長, 貌端麗性柔婉, 耽文史, 手不釋卷, 尤工小楷, 好吟咏)” 그러나 사위 손성연은 뛰어난 재주를 지녔음에도 갑오년(1774) 향사에서 낙방했고 왕채미는 매우 우울해하였다. 왕광섭은 손성연이 자유롭고 구속되지 않는 성품으로, 술과 여자를 즐기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다소 원망어린 필치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딸아이는 갑자기 부모슬하를 떠났고 또 당시 소주로 시집간 셋째가 갑자기 죽었다. 딸은 슬픔에 통곡하며 죽으려 하였다. 자신도 몸이 약하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두려워하여, 늘 우울해하였다(女以乍離膝下, 又值余三女適吳者暴亡, 女悲慟欲絕. 自顧孱弱亦恐壽命不長, 居常愴愴)” 그녀는 딸 하나를 낳고 시름시름 앓다 결국 죽고 만다. 부친은 딸의 운명이 신비한 힘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귀신이 사물을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전세의 업과 같은 주장이 어찌면 모두 황당한 것만은 아닌 것일까(或有鬼物凭之耶, 抑宿根之說不盡荒唐耶)?” 그는 셋째 가문의 비극을 상기하며 셋째 자매와 딸들의 운명을 대비한다. “셋째는 섭환환과 같고, 넷째는 섭소란과 같다(余三女似昭, 四女似琮).”¹⁶⁾ 왕채미의 부친 역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이 딸을 지배한 것은 아닐까 의심한다. 하지만 그는 결코 섭소원처

16) 王光燮〈亡女王采薇小傳〉, 王采薇著《長理閣詩集》, 光緒年間 吳縣朱記榮 刊本. “昭는 섭소원의 장녀인 紈紈을, “瓊”이란 섭소원의 셋째 딸인 小鸞을 지칭한다.

럼 직접 재녀박명론을 들먹이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왕채미의 심리적, 정서적인 변화를 자세히 설명하며, 그녀의 침울하고 비관적인 성격이 병세를 악화시켰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부친은 전통적인 “재녀박명론”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왕채미의 성격과 가족 등의 주변 환경이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십여 년 후, 또 다른 여시인 嚴蕊珠(1781-1800, 字 綠華)의 전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재녀박명론”의 쇠퇴를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수원여제자 중의 하나였는데 스무 살의 나이로 요절한다. 그녀가 죽고 삼년 뒤에 유고집 《露香閣詩存》이 출간된다. 그녀의 전기에서 오빠 嚴秩은 누이동생을 여성시인의 전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을 지닌 소녀시인으로 묘사한다.

건륭 신축년 5월 27일, 어머니께서 꿈속에서 두 마리의 봉황이 정원에 내리는 것을 보시고는 두 누이동생을 낳으셨다. 맏이는 鳳珠이고 둘째는 蕊珠였다. 예주의 자는 녹화였고 용모단정하고 범절이 품위 있었다. 양친을 모시면서 특히 귀여움을 받았다. 타고나길 총명하여 책을 읽을 때 바로바로 외웠다. 나는 일찍이 吳蕙澗 선생에게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 예주는 막 이빨이 날 때였다. 서재를 지나갈 때마다 선생님의 강론을 주의 깊게 들었고, 漢魏의 시들과 唐詩를 읽었는데 모두 이해하였다. 곧잘 나를 통해 스승에게 질문하곤 했다. 스승님은 경탄하며 어린 아이에 이렇게 깨우칠 수 있다니 정말로 규방에서는 언기 힘든 재주로다 하였다. …… 일찍이 두보의 “만권의 책을 독파하니 신들린 듯 글을 쓰도다”는 구절을 읽고는 탄식하기를: ‘내가 비록 여자 몸이지만 어찌 만권을 독파하지 못하리. 규방에서는 그저 아이들이 말을 배우듯 짹짹 거리는 것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예주는) 책 상자 수십 개를 늘어놓고 역사 책부터 百家에 이르기까지 모두 섭렵하였다. 당시 노모에게 역사 이야기를 손바닥의 주름 세듯 자세히 들려주었으니 듣는 이들은 줄린 줄도 몰랐다. 뒤에 원매 선생의 《소창산방집》을 보고는 기뻐하며 이 분야야말로 진정한 나의 스승이다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시를 예물로 바치고 수업을 들었다. …… 병진년(1796) 겨울 원매 선생이 배를 타고 방문하자 함께 시문을 고증하고 고금

인물을 폄평하였다. 선생은 博雅하다 감탄하시고는 벼루를 선물로 내린다. ……원매 선생이 돌아가신지 이미 이년이 지났을 때였다. 부친은 예주가 병중이라 충격을 받을까 우려하여 가족들에게는 예주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병세가 위중한 상황에 와서야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바로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아이의 뜻을 슬피 여겨 선물 받은 벼루를 함께 묻어주고 유고를 편집하여 출판하였다. 예주의 명민한 자태와 정숙한 덕, 효성스러운 행실을 이것밖에 전하지 못함이 거듭 슬플 따름이다. (乾隆辛丑五月二十又七日, 吾母夢雙鳳集於庭擘, 生兩女弟, 長鳳珠, 次蕊珠. 蕊珠字綠華, 容貌端肅, 舉止於重. 事老親尤能得其歡心. 性聰慧, 讀書過目成誦. 予嘗從吳蕙湄師遊, 時綠華始齠. 每過塾必傾聽其講論, 讀漢魏三唐詩有心得, 輒屬余質諸師. 師驚曰髫年穎悟如是, 眞閨閣中未易才也. ……嘗誦杜少陵, “讀破萬卷書, 下筆如有神”句, 歎曰, “予雖現女子身, 豈不能讀萬卷書? 內徒嚶嚶如小兒學語耶.” 遂陳篋數十, 自諸史列及百家流覽殆徧. 時爲老母談史事如數掌上紋, 聽者忘倦. 後見隨園先生小倉山房集喜曰, 此眞吾師也. 以詩爲贊遂受業焉. ……丙辰冬先生艤舟過訪相, 與考證詩文, 評騭古今人物. 先生歎爲博雅贈以端研. ……先是隨園歸道山已二稔矣. 老親以綠華病中恐其槁把心喪也, 戒家人勿洩. 至彌留時, 始告之, 遂瞑. 余悲其志, 以贈研爲殉, 并輯其遺稿授之梓. 獨惜綠華以明敏之姿, 貞靜之德, 孝恭之行, 而所傳止此, 重可哀已)¹⁷⁾

출생의 신비주의, 어린 시절의 영민함과 시적 능력의, 부모에 대한 효성등의 묘사는 상술한 왕채미의 전기에서도 볼 수 있는 묘사이다. 그러나 엄예주의 전기에서는 왕채미를 시종 짓누르고 있던 불운의 예감과 우울한 정조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학에 대한, 특히 원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그녀가 매우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충만한 소녀였음을 보여준다. 서술자는 그녀의 재능과 요절을 더 이상 함께 연계시키지 않고 대신 엄예주가 가정에서 받았던 교육, 근면한 독서 태도, 글쓰기의 열정을 자세히 서술한다. 이 전기 속에서 여성의 박학함과 문학적 능력은 천부적 재능과 훌륭한 가정교육의 결과물로 해석될 뿐,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17) 嚴秩, 〈小傳〉, 嚴蕊珠著《露香閣詩存》, 嘉慶8年(1803)刻本.

도광연간에 생존했던 夏伊蘭(1812-1826) 역시 요절한 소녀시인이다. 그녀의 유고집인 《吟紅閣詩鈔》에는 모두 여덟 편의 서문과 전기가 실려 15세의 나이로 생을 마친 이 조숙한 소녀를 애도하였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그녀의 재능이 불운한 운명을 가져왔다는 암시는 찾아볼 수 없다. 편찬자들은 여기서 모두 이 소녀를 문학적 열정이 충만하고 훌륭한 문학 교육을 받은 양가의 규수로 묘사하고 있다. 羅文鑑의 서문은 그녀가 가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하이란은 “일곱 살 때부터 외조부인 湯兩尊 선생 밑에서 독서하여 《毛詩》 《孝經》 《論語》의 대의를 이해하였다. 열 살에는 시를 배우며 내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당대의 오언율시 선집 및 方芳佩 부인의 시집, 隨園女弟子들의 시를 가르쳤는데 바로 이해하였다(七歲從舅祖湯兩尊先生讀書, 通毛詩孝經論語大義, 十歲學爲詩就余請業, 以唐人五律選本暨方芷齋夫人稿隨園女弟子詩授之, 輒能領會)”¹⁸⁾

전통적인 “재녀박명론”은 적어도 집안에서 펴낸 여성의 개인문집 속에서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그 자리는 그 가정의 높은 문화 수준과 여성의 학구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로 채워진다. 하지만 이른바 “文識性的 저주”가 모든 문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문이 주체가 되어 출판한 여성 시문집에서는 이러한 관념이 많이 희석되지만 詩話나 詩選集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암시를 찾아볼 수 있다. 도광, 함풍 연간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 沈善寶는 1846년 완성한 여성시화집 《名媛詩話》 속에서 마치 전기소설을 쓰듯 하이란의 최후를 신비하게 묘사하는데 이는 하이란의 개인 시문집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심선보는 재녀박명론과 관련하여 “공부를 많이 해서 조물주가 시기했다”로 요약되는 종래의 논리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것”으로 그 강조점을 변환시킨다.

(하이란은) 몇 살이 되자 사성을 이해하면서 (그녀에게는) 책과 필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혼자 한가로이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늘 표연히 (특도하여) 승천할 생각을 하였다. 임종 삼일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 앞에서 절하며 통곡하며 말하였다. “저는 떠나려 합니다. …… 속세에서 주어

18) 羅文鑑 〈吟紅閣詩序〉, 夏伊蘭著 《吟紅閣詩鈔》, 道光己丑 (1829) 刻本.

진 기간이 이미 다하여서 雷廟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혀 처량한 기색이 없었다. 더구나 속세에 오래 머무는 것도 재미가 없었다. (數齡卽解四聲, 書卷筆墨外, 無他. 好閑居寂處, 常飄然作跨鶴想. 臨歿前三日, 晨起沐浴更衣, 作膜拜狀呼母前耳曰. 兒欲去……兒謫限已滿, 仍歸雷廟…… 決無淒楚之色, 且以塵世久居爲无味).¹⁹⁾

여성문집의 전기문에서 재현되는 보다 현실적인 재녀 이미지와, 신비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시화집에의 이미지는 물론 모두 그 이미지를 해석하고 소비하는 독자와 비평가가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여성 이미지가 생성, 변화되는 과정에 현실의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재녀 박명론”의 쇠퇴와 변천은 상당 부분 청대 중기 이후 강화된 “家學”문화의 발전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변천의 현실적 맥락과 그 의미를 가늠해 보려고 한다.

4. “家學”문화와 재녀 이미지의 관계, 그 이상과 현실

재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학, 즉 한 가문의 학문과 문학 전통을 강조하는 것은 점차 이 시기의 보편적인 서술 방식이 된다. 여기에는 물론 건륭연간 이후 문단을 지배했던 格調派의 리더 沈德潛의 문학 관념 역시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²⁰⁾ 1789년에 출판된 소주 여성시인 10명으로 구성된 “淸溪詩社”의 合集인 《吳中十子詩鈔》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발견된다. 오중십자의

19) 沈善宝, 《名媛詩話》卷六, 光緒丙子年(1876) 鴻雪樓刊本, p. 21.

20) 잘 알려진 대로 심덕잠 등 격조파 주창자들은 詩論에 있어 시인의 학문과 修養을 매우 중시하였다. 물론 이는 비단 격조파 뿐 아니라 당시의 시단 전반에 퍼져 있는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당시 문단은 작가에게 義理, 考證, 文章 세 가지 모두를 겸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의 靈性을 중시한 원매와 같은 이들도 결코 시인 본인의 학문적 소양을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구성원들과 詩社의 리더였던 任兆麟은 한결같이 여성시인들이 심후한 “家學淵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임조린은 뛰어난 여 시인이라면 마땅히 부친의 지식과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성이 시 읊는 법 뿐 아니라 經學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²¹⁾ 이러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소녀들의 문학적 조속성은 “가학”연원과 교육의 결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당시 사람들의 여성교육에 대한 관점에도 이러한 관념 변화가 분명히 감지된다.

청 후기 강남 지역 여성문단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潘素心 (약1764-1844) 역시 조속형 시인이었으나 그녀는 팔십 여세까지 장수하였다. 그녀의 부친인 潘如炯은 그녀의 소녀시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내 딸 소심은 나의 부임지를 따라 강서에 머물 때 여섯 살에 구두법을 배웠고 열 살 때는 회계를 담당했지만 시를 가르치지는 않았고 시 읽는 것을 금했었다. 열두 살 때 책장위에 있는 시를 몰래 가져와서 읽으니 점점 시에 능하게 되었다. ……나는 이를 보고 감탄하여 (시 짓는 것을) 금할 수 없겠다고 하였다. 소심은 그리하여 당시와 그 이후의 시를 두루 읽었고 작품도 많았다. 이렇게 수년이 지나자 딸이 몸이 약해질까 걱정할 지경이었다. 《통감강목》도 가르쳤다. 이렇게 또 수년이 지났는데 시도 많아졌고 다닌 여행길도 많았다. …… 부잣집 딸들이나 가난한 집 딸들이나 모두 문 밖을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소심은 남북으로 배를 타고 오만여리를 왕래하였다(吾女素心, 隨宦江西, 六歲授以句讀, 十歲司會計, 未嘗教以詩, 且禁讀詩. 十二歲竊取架上放翁詩讀之, 漸能詩……歎曰不可禁矣. 素心乃徧讀唐以後詩, 所作亦多. 如是數年, 吾慮其弱也, 授以通鑑綱目. 如是又數年, 詩多而行路亦多矣. …… 紅樓富家女綠窗貧家女斯二者皆不出戶庭, 而素心南北舟輿往來五万余里)”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단정내린다. “(소심이) 거쳤던 성과 강산, 풍속들 모두가 시를 쓰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所

21) “한대에 부친의 학업을 전수한 여성들을 보면 제남의 伏勝의 딸, 부풍의 반소, 진류의 蔡琰 등이 있다. 그러나 복씨와 반씨는 시인의 명성이 없었고 채씨는 시가 외에는 다른 저술이 없었다. 정말로 재주를 겸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 나는 주종숙이 시도 뛰어난고 경진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 즉, 이는 전인들이 갖추지 못한 것을 갖추는 것이기도 하다(考漢時女子能傳父業者, 有濟南伏氏, 扶風班氏, 陳留蔡氏. 然伏班不聞有詩名, 蔡則詩歌外不聞有著述, 洵乎兼才之難也. …… 余願翠娟進詩而譯經, 則又兼前人之所不能兼者)”. 任兆麟 《序》, 朱宗淑 《修竹樓吟稿》, 任兆麟 閱定/張允茲 選錄, 《吳中女士詩鈔》, 乾隆己酉 (1789) 刻本.

經城郭江山風俗皆有益於其詩)” 그는 심지어 童子試의 시험지를 딸에게 주어 채점하게 하였다. “밤늦도록 자지 않고 관사에 등불을 걸어 놓았다…… 소심은 머리를 늘어뜨린 처녀였지만 엄숙하게 붓을 들고 평가를 하였다(夜分不寐, 官舍張燈, ……素心以一垂髻女儼然點筆而甲乙之).”²²⁾ 반소심 부친의 이러한 태도는 강남 지역 신사 가정에서의 여성 교육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보여준다. 그는 딸의 재능과 학식은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친의 친구인 楊濟昌 역시 반소심의 재능을 언급하면서 가학의 전통과 여행을 다니며 넓은 견문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²³⁾

《國朝閩秀正始集》의 편찬자인 完顏惲珠 (1771-1833) 는 보수적인 전통 詩教論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받은 교육을 회상하는데 여기서 당시 여성교육에는 부친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내 나이 일고여덟 무렵에 돌아가신 부친은 마땅히 독서를 하여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여기셨다. 이에 두 오빠와 함께 가정교사에게 배웠다. 四書와 《효경》, 《모시》, 《이아》 등 여러 책을 읽었다. 어느 정도 자라자, 부친께서는 친히 고금체의 시들을 가르치셨는데 누누이 正始를 가르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그래서) 나는 시 읊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余年在齠齔, 先大人以爲當讀書明理, 遂命與二兄同學家塾, 受四子孝經毛詩爾雅諸書. 少長, 先大人親授古今體詩, 諄諄以正始爲教. 余始稍學吟詠).”²⁴⁾ 19세기 상해 출신의 여시인 趙棻(1778-1856) 역시 모친은 오히려 여공을 강요했었고 부친이 글쓰기를 독려했다고 회상하고 있다. “아홉 살이 되자 시에 익숙하게 되었다. (시를) 보면 마음이 기뻐다. …… 어머니는 내가 몸이 상할까 걱정하시어 강제로 바느질을 하게 하셨다. 부친께서만은 유독 (시를) 권장하시고 격려하시며 내 뜻이 훌륭하다고 여기시어 시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九歲工韻語, 見之輒心喜, …… 母氏怡

22) 潘如炯〈序〉, 潘素心著, 《不櫛吟》, 嘉慶5年(1800) 本家藏版.

23) 楊濟昌〈序〉, 반소심 《부즐음》.

24) 完顏惲珠〈弁言〉, 《國朝閩閩正始集》, 道光11年(1831) 紅香館刊本.

瘦損，強使事針組，先君獨獎勵，爲此志可取，教以作詩法)”²⁵⁾ 부친의 지지 아래 남자 형제와 거의 동등한 교육을 받은 딸들은 가학을 전승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張淑蓮(字 品香, 浙江 上虞人)이라는 여성 시인은 여성의 교육과 학문의 전승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시를 손녀들에게 남긴다.

내가 옛날 시집가기 전, 부친은 시 읊는 것을 좋아하셨지. 당시 사친에서 관직을 지내고 계셔서, 훌륭한 경치에 시구는 더욱 공교해졌네. …… 내가 총명한 것을 기특히 여기시어 아들처럼 딸을 가르치셨지. 형제들과 자매들, 창화하며 서로 즐거웠지. 다 읊으면 평가를 청하니 종종 머리를 싸매었지 …… 너희들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름을 드날리기 기대한다. …… 대대로 詩書에 종사하였으니 재와 덕에 함께 힘써라. 함께 이루어도 서로 방해될 것 없으니. (我昔居閩中, 我父喜吟詩, 時方宦蜀地, 境好句益奇. … 憐我頗聰慧, 教女如教兒, 兄弟及姊妹, 唱和相娛嬉, 吟成請甲乙, 往往爲頷頤. …… 汝雖非男兒, 期於名姓揚, 亦須傳素馮, 世業詩書長, 務使才與德, 相成毋相妨).²⁶⁾

운주가 정시집을 편찬할 당시 이미 90여세였던 그녀는 손녀들에게 자부심 어린 격려를 보내고 있다. 자신의 부친이 얼마나 자신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는지를 회고하고 자신 있게 재와 덕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나아가 아들이 아닌 딸들에게도 집안의 명예를 빛낼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딸들도 가학을 전승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재와 덕의 조화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부친이 아닌 남편이 아내의 문화 교육에 적극적인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부친의 역할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예외적이다. 아내는 남편의 唱和 대상이기는 했지만 교육대상은 아니었다. 재녀의 문화적 성취는 친정 가문의 문화적 업적과 자량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재녀가 혼인하여 그 집안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Susan Mann은 결혼 전이나 출가 뒤나 재녀들은 항상 “家學”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재녀들의 존재는 가문의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고, 적지 않

25) 趙葵, 〈拙詩將付梓命楨兒校勘作此示之〉, 《瀟月軒集》, 咸丰 8年 (1858年) 版.

26) 《孫女輩學詩書示》, 恽珠《國朝閩閩正始集》卷十五, p. 1.

은 가문은 딸의 문화적 성취가 그들 가족의 문화적 업적의 한 부분임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27) 최근 청대 강남 지방의 가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른바 “가학”에는 협의와 광의의 의미가 있다. 협의의 가학은 가족 구성원으로 전승되는 전문 학술적인 私學을 지칭하고 광의의 가학은 특정 가문의 문학과 예술 활동을 말한다. 28) 사람들이 여성 작가를 칭송할 때 사용하는 “가학”에는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문학적 재능과 經史的 지식을 갖춘 딸들이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면서 사람들은 여성의 재능은 불운의 씨앗이 아니라 친정 가문의 家學을 계승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뿌리 깊은 여성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의심과 “문식성의 저주”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혁신적 의식 변화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여성의 문식성이 문학적 글쓰기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여성이 친정가문의 가학의 전승자가 될 수 있다고 승인하였다. 조숙한 문학소녀가 ‘화근’에서 ‘축복’으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있기에 가능하였다. 이 시기 여성의 “가학” 전승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陽湖張氏 네 자매를 들 수 있다. 1850년 常州詞派의 창시자인 張惠言의 조카들이자, 상주파사의 대표자인 張琦(1764-1833, 字翰風, 号宛鄰)의 네 딸은 당시 지역에서 이름난 재녀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가학이기도 한 상주사파의 미학 관점을 충실하게 이어 받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29) 이들의 시문집은 장기의 아들이자 이들 여성들의 남동생인 張曜孫에 의해 ‘陽湖張氏四女集’이라는 제명 아래 합각된다. 이 合集은 “家學” 관념이 여성 문화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잘 입증해주는 증거이다. 네 자매의 각각의 시집마다 수십 명의 지방 명사들이 참여하여 제사와 序跋文을 쓰고 여성에

27) 曼素恩(Susan Mann)/定宜庄, 顏直歲譯, 《綴珍錄 - 十八世紀及其前後的中國婦女》, 江蘇人民出版社, 2005년, p. 262.

28) 羅時進/陳燕妮, 〈清代江南文化家族的特征及其對文學的影響〉,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2009년 8期.

29) 鄧紅梅, 《女性詞史》, 山東教育出版社, 2002年, pp. 368-375.

의한 家學 전승을 찬양하였다. 막내딸 張紈英의 시집인 《鄰雲友月之居詩》의 서문을 쓴 莊煜은 “장요손의 누나들의 시는 모두 능히 가법을 이어받았다(仲遠諸姊之詩, 固皆能承其家法)”³⁰⁾ 이라 하며 여성들의 시문이 가학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맏이인 張縉英의 시집에 題跋을 쓴 吳汝庚 역시 장씨 가문의 가정교육이 훌륭한 글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부인은 어려서 가정교육을 받았고 커서는 문장을 연습하였다. 그래서 부인의 작품은 모두 대아의 그것처럼 화합하였고 제왕의 명령처럼 완만하였다. (夫人幼秉庭訓, 長習篇章. 故其所作皆沖融大雅, 夷猶渙汗)”³¹⁾ 사람들은 장씨 가문이 후손들에게 미친 문화적 영향력을 張縉英의 손녀에게까지 찾으려고 하였다. 동치5년(1866) 간행된 吳蘭宛(字宛之, 江蘇常熟人)에서 《灌香草堂初稿》에서 장요손을 포함한 서문자들은 오란원의 문학적 성취가 장씨 가문의 문화교육의 결과임을, 특히 장기에서 시작되어 張縉英을 거쳐 오란원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장씨 집안의 가학이 이어지고 있음을 누누이 강조한다. “누나 張縉英은 부친에게서 시를 배웠다. …… 외조카 손녀인 오란원은 어린 시절 매우 민첩하여 누나가 가르치면서 …… 매우 기뻐하였다(女兄孟緹受詩于先君……再女甥宛之幼時資性頗敏, 女兄授之 ……女兄深喜之).” “오부인이 쓴 《관향초당초고》에서 보여주듯, 웅장한 기운은 마치 《담鞠軒》시집과 흡사하지만 세밀함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 아마 오부인은 장부인의 손녀이므로 그 시는 장기 선생을 이어받았을 것이다(其夫人所著灌香草堂詩見示, 渾灑流轉神似《淡鞠軒》, 而綿密過之. 盖夫人即張夫人之女孫, 故其詩于宛陵爲再傳).”³²⁾

양호장씨 가문은 청대 강남 가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른바

30) 莊煜〈序〉, 張紈英著《鄰雲友月之居詩》(《陽湖張氏四女集》中), 道光30年(1850)宛鄰書屋本.

31) 吳汝庚〈題跋〉, 張縉英著《澹鞠軒初稿》(《陽湖張氏四女集》中).

32) 龐鍾路〈序〉, 吳蘭宛著《灌香草堂初稿》, 同治5年(1866)刊本. 《淡鞠軒》이란 작자의 조모인 張縉英의 시집명이고 “宛鄰”이란 장씨 네자매의 부친 張琦, 즉 작자의 외증조부이다.

“문화가족”의 전형적인 예이다. 33) 이는 물론 학문의 私人化, 가정화라는 17세기 이후 강남 지식인 문화의 큰 맥과 맞닿아 있다. 34)

여성 작가와 가학의 관계를 묘사하는 대목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전기의 서술자들이 작가 친정 가문의 학문과 문학 전통에 바치는 경의이다. 청대의 여성들은 역사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혼인 후 법률적, 사회적 지위가 철저히 夫家로 귀속되지만³⁵⁾,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친정 집안의 일원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친정의 부친이나 남성 형제는 딸들의 시문집 출판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앞에서 예를 든 여시인 반소심의 첫 번째 시집 《不榭吟》은 친정 부친인 潘汝炯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출간된 것이다. 1800년에 출판된 이 시집에는 가장 먼저 부친의 서문이 배치되고 蔣士銓과 袁枚 등 명사들의 “舊序”가 있고 諸家들의 평점이 있다. 부친은 출간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건륭 정미년(1787)에 나는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였다. 다음 해에 소심은 전당 왕씨 집안에 시집갔다. 기유년에 사위는 과거에 급제하여 갑인년에 부부가 함께 경사로 떠났다. 작년 기미년(1799)까지 (딸아가) 이십오 년간 써온 시가 10권이 되어 《부즐음》이라 이름하였다. 나는 그 원고들을 찾아 작품을 골라서 2권으로 정리하였다. 인쇄업자들에게 (원고를) 맡기니 바로 (출판할) 길이 생겼다(乾隆丁未, 吾以終養歸家, 其明年素心字錢塘汪壻. 己酉壻等賢第一, 甲寅偕往京師. 至去年己未前後二十有五年得詩十卷, 曰《不榭吟》. 吾索其稿來汝之, 存二卷. 授諸築氏, 以就正有道焉.”³⁶⁾ 시집 출간

33) 羅時進, 陳燕妮에 의하면 청대 강남의 문화가족의 특징으로는 가학을 중시하고 유학을 업으로 삼으며 과거시험에 성공률이 높았으며 가족 모두가 시적 風雅를 즐겼고 母系의 교육을 중시했다는 것들을 꼽을 수 있다.

34) 엘만(Benjamin Elman)은 18세기의 많은 학자들은 이전의 사인들처럼 공명 추구에 열을 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보다는 자신의 에너지를 개인의 학술연구에 쏟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술 연구의 私人化, 학자의 직업화는 18세기 강남 사인 생활에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된다. (艾爾曼著/趙剛譯, 《從理學到補學 - 中華帝國晚期思想與社會變化面面觀》,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5年, 第3章.

35) 청대 법률에 의하면 여성들은 재산승계권, 행위능력에 대한 인정, 소송권, 범죄 처리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의 개체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친정 집안은 시집간 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고 모든 권리는 夫家(남편 생존여부와 관계없이)에 귀속되었다. 楊劍利, 《論清代婦女的社會地位 - 從清法典看》(《江海學刊》, 2006年 3月)참고.

36) 潘汝炯, 《不榭吟》序.

당시 반소심은 이미 혼인한 지 10년 이상 지난 상태였었고 관직에 있는 남편을 따라 경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부친은 오래 전에 출가하여 멀리 살고 있는 딸의 시집 출간을 책임진다. 반소심의 남동생은 그녀의 남편 역시 편집 과정 중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는 관례적인 레토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소심은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도 굳이 자신의 원고를 고향의 부친에게 부쳤고³⁷⁾ 출판의 핵심 부분인 “작품 선정”과 “인쇄”라는 두 가지 과정이 모두 부친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반소심의 형제들 역시 교정을 맡았고 서문과 평점에 참여한 명사들 모두 부친이나 반소심 자신의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작가의 남편인 汪潤之는 아내의 시집에 짙은 題詞 한 편을 쓴 것 외에는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³⁸⁾ 반소심의 시집은 분명히 반씨 집안의 문화사업의 일환이었을 뿐 夫家의 것은 아니었다. 법률적, 사회적 층위가 아닌 문화적 층위에서는 딸들 역시 친정 가문의 가학을 전승할 수 있는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才女의 이상화, 家學의 중시가 실제 여성 교육의 성장에 얼마나 결정적인 작용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현실은 오히려 이러한 관념상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가학문화의 대표적 예로 소개한 陽湖 張氏 네 자매의 문집은 여성 교육의 이상 뿐 아니라 그 현실 역시 조심스럽게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인다. 양호장씨 가문 여성들의 문학과 삶을 소설적 필법으로 복원한 수잔 만은 결코 장기가 딸들에게 문학 교육을 정식으로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맏딸만은 어린 시절에 오빠가 받는 교육의 혜택을 함께 받았지만 13세에 오빠가 요절한 뒤 그녀는 정식 교육에서 멀어진다. 그녀는 외유 중인 부친과 어린 남동생을 낳고 키우느라 바쁜 모친 대신 거의 모든 집안일을 떠맡았다. 모친이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문학적 수련은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37) “누나 반소심의 시 열권을 경사에서 편집하여 부친 사람은 남편인 汪解元이었고 두 권으로 정리하여 인쇄를 맡긴 이는 아버지였다(吾姊虛白詩十卷, 由京師編輯而寄來者姊婿汪解元聽舫也, 選二卷授築氏者吾父也).” (潘維塔, 《不榭吟》跋)

38) 반소심의 남편 汪潤之는 제사에서 밝히기를, 반소심의 남동생이 편지로 반소심의 시를 출판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고 하였다. 그는 아내의 글쓰기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듯 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제사에서 아내가 혼인 후 글쓰기 환경이 어려워 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집은 이가 어찌 시집가기 전과 같겠는가(作婦何如作女詩)”라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동생들과의 상호 절차탁마에 의한 것이었다.³⁹⁾ 자매 중 장환영이 묘사한 큰 언니 張縉英의 어린 시절은 당시 강남 문인들이 이상화했던 가학 문화와 재녀 이미지 뒤에 가려진 여성 문화 교육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언니의 어린 시절에 부친께서는 늘 외유중이었고 어머니는 홀로 집안 살림을 맡으셨다. 언니는 예닐곱살부터 어머니 일을 함께 하였고 비녀 꽃을 나이에는 음식을 담당했는데 매우 조리 있게 잘 처리하였다. 어머니는 언니를 매우 사랑하셨지만 집안이 가난하고 여가도 없어서 독서를 시키지 못하셨다. 간혹 당시를 가르치셨는데 언니는 매우 좋아하였다. 하지만 늘 가르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둘째 언니와 몰래 당시와 송사를 가져다 읽었다. 처음에는 글자를 판독할 수 없다가 며칠이 지나면 홀연히 익히게 되었고 또 며칠이 지나면 그 뜻에 통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안의 장서를 모두 읽게 되었다. 언니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에 청소, 바느질에 옷을 지으면서도 늘 책을 그 옆에 두고 일하면서 책을 읽었다. 둘째 언니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면 어머니가 잠드시길 기다렸다가 아침까지 책을 읽었다. 그 다음날이면 여전히 집안 일을 하였다. (姊幼時先府君恒遠游, 先孺人躬自操作. 姊六七歲即能分勞, 年及笄治中饋, 井井有法. 孺人極愛之, 然苦家貧且無暇, 未能使讀書也. 偶授唐人詩, 姊輒好之, 然不能時授, 乃與仲姊緯青私取唐人詩宋人詞讀之. 初不能辨識文字, 數日則恍然如宿習. 又數日則窅然通其議, 於是盡讀家藏書. 凡汲炊烹飪洒掃澆濯鍼線刀尺皆置書其旁, 且讀且作. 仲姊則盡治一日事, 俟孺人寢, 乃讀書達旦, 明日治事如故)⁴⁰⁾

장환영의 이러한 서술은 물론 양면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여성들은 종종 극적 효과를 위해 여성의 독서와 글쓰기 환경의 지난함과 그녀들의 높은 학구열, 창작열을 대비하거나 심지어 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적인 가정교육’의 혜택을 모든 여성 작가

39) Susan Mann, 《The Talented women of the Zhang fami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2007, pp. 62-68.

40) 張純英《后序》, 張縉英《澹菴軒初稿》.

들이 누린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설령 신사층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문학 교육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수잔 만은 청 중기 사인들이 딸들에게 시행한 높은 수준의 문화 교육(식자, 경사, 시문 포함)은 여전히 일부 지역과 가정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여전히 識字 교육에 접근하지 못했고 대신 口述을 통해 婦道나 女工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받았다. 41) 이는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과거나 관도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여성 교육은 현실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치스러운 문화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 시대 가정에서 이루어진 여성 교육은 우연한 기회에 불연속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에 가속화된 사대부 계층의 분열과 하층 士人들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士族 여성 내부의 분열을 가져온다. 도광 연간의 가장 유명한 여성 작가 중 하나인 沈善寶는 관리의 딸이었지만 9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고 가장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며, 동시대 유명 詞작가인 顧太清 역시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각지를 유랑하며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하였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은 현실적으로는 체계적인 문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 여성들 스스로가 회상한 어린 시절의 교육은 매우 임의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어떤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였다. 딸을 위한 가정교사를 초빙하는 일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 앞에서 예를 든 엄예주나 운주의 경우처럼 학령기의 남자 형제가 있을 때 함께 배운다든지, 반소심처럼 우연히 가족 중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 그녀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41) Susan Mann <The Education of Daughters in the Mid-Ch'ing Period>, 《Education and society in Late Imperial Chian, 1600-1900》, edited by Benjamin A. Elman and Alexander Woodsid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물론 이 시기 여성 출판물의 급증은 이러한 인식 변화와 함께 여성 교육의 현실도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훌륭히 교육받은 재녀는 집안의 긍지와 자랑으로 이상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로서의 여성이 얼마나 현실적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여성 교육의 현실에서의 복잡한 상황을 ‘多元文化生態’라 명명했던 郭英德 역시 “이상적 전형”과 여성교육의 실제에 모순이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⁴²⁾ 이 시기의 여성 교육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미개척 분야의 하나이다. 이 분야에 남아 있는 자료는 대부분 실재했던 교육 환경에 대한 묘사보다는 “이렇게 해야 한다”에 가까운 공적 담론의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료는 현저히 부족하다. 현재 당시 여성들의 문자 해독율을 숫자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다. 혹자는 19세기 초기까지 여성의 문자 해독율을 1-10%까지로 폭넓게 어렵잡는다.⁴³⁾ 1930년대 Mary Anderson은 광둥 지역 여성의 문자 해독율을 조사한 1827년과 1837년, 그리고 1873년에 이루어진 통계가 각각 10%, 1%, 0.1%까지 폭넓게 움직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⁴⁴⁾ 이렇게 통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통계 방법과 조사 대상 선정의 문제에 기인한 탓이겠지만 ‘識字’의 정의에 대한 諸家の 인식 차이에도 기인했을 것이다. 단순히 실생활에 필요한 글자를 좀 아는 정도라면 10%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겠지만 여기서 언급한 여성 작가들과 같은 수준의 글쓰기 능력과 독서 능력을 갖춘 이들은 1%미만의 소수였음이 분명하다. 재녀들의 재능과 가학 전통이 이상화되는 한편에는 “부녀자들은 그저 장작, 쌀, 고기, 생선과 같은 수백 글자 정도만 대충 알면 된다. 글자 많이 아는 것은 도움이 없고 손해만이 있다(婦女只許粗識柴米魚肉數百字, 多識字无益而有損也)”⁴⁵⁾와 같은 논리가 함께 유통되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42) 郭英德, 〈明清時期女子文學教育的文化生態論述〉, 《中山大學學報》社科版, 2008년 5기

43) Lloyd E. Eastman/李升輝 譯,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중국사회경제사, 1550-1949》, 서울: 돌베개, 2006, p. 41.

44) Mary R. Anderson “Protestant Mission Schools for girls in South China” (Mobile, Alabama: Heiter-Starke Printing Co., 1943). Susan Mann 〈The Education of Daughters in the Mid-Ch’ing Period〉에서 재인용함.

45) 이 말은 明末의 여계서인 《溫氏母訓》에 보인다. 陳東原, p. 192에서 재인용함.

필자는 이 시기 여성들 문화 교육의 현실에 비해 담론이 더욱 ‘진보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즉 여전히 척박한 여성 교육의 현실에 비해 재녀를 이상화하는 관념상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9세기에 여성독서의 범위가 여계서나 경전, 시문류에서 통속문학류로 대대적으로 확장된 것 역시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성들은 경전과 시문 이외에 이른바 통속문학 독서에도 적극적으로 되었다. 소설이나 탄사를 읽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정당한 행위가 된다.⁴⁶⁾ 1860년대에 쓰여진 탄사 《金魚緣》의 작가 孫德英의 어린 시절을 그녀의 율케이기도 한 서문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한다.

바느질하다 틈이 날 때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경전과 역사, 諸家들의 책과 異書와 雜傳까지 읽지 않는 것이 없었다. 틈틈이 여러 가지 고사들을 이야기해주었는데 (이야기에) 시작과 끝, 거둠과 남음이 분명하여 듣는 이들은 모두 지루한 줄 몰랐다(每于針黹之暇, 手不釋卷, 凡經史諸子, 以及異書雜傳, 無不博覽記誦. 間談遠近故事, 終始靡遺, 聽者皆無倦色).⁴⁷⁾

물론 탄사 작가의 전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십여 년 전 출간된 또 다른 여성탄사 《筆生花》에서 탄사 장르 자체에 대한 과도한 비하를 서슴지 않았음을 상기하면 이 장면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경전이 아닌, 그리고 시문도 아닌 허구 서사를 읽는 소녀들 역시 독서하는 여성 이미지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시를 짓거나 창화할 능력은 못 되는, 그러나 글을 읽을 줄은 아는 여성들이 탄사소설과 같은 통속적 읽을거리에 심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차 현실적으로 당연시되어갔던 것은 어쩌면 열악한 여성 교육의 현실과 ‘독서하는 여성’이라는 이상 사이에 놓여 있는 간극 때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46) 물론 명말에도 《모란정》과 같은 희곡 작품에 대한 여성 독자의 열렬한 반응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백화소설, 탄사 등 통속문학을 읽는 여성독자들이 존재했지만 그 누구도 이를 공개하거나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않았다. 明末 清初 시기의 여성독서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줄고, 앞의 논문을 참고할 것.

47) 鈕如媛〈序〉, 孫德英《金魚緣》, 光緒 癸卯年 (1903), 上海書局石印本.

하지만 그럼에도 장씨 가문의 딸들은 “才女”가 될 수 있었다. 현실 속의 여성 교육이 이 시기에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성들이 “才女”로 탄생되는 과정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자매들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결코 특별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들 가족은 결코 성공한 士族이 아니었다.⁴⁸⁾ 그러나 지배계층의 주변부에 속해있던 여성들도 글쓰기로 이름을 날리고 책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들의 명성은 家學의 전승에 대한 가문의 자부심, “문화가족”의 탄생이 일상화된 강남 지역의 문화적 환경, 그리고 여성의 재능을 지역 문화의 명예로 해석했던 지방 紳士층의 관념⁴⁹⁾, 그리고 私刻문화의 번영 등이 함께 어우러져 탄생한 것이다. 현실은 그다지 이상적이지 못했지만 가문과 지역에서는 앞 다투어 “才女”를 만들어 내었고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여성 시문집을 출간하는 데 열을 올린다. 현실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지만, 여성의 문학적 글쓰기를 가학의 일부로 치부하고 미화하는 문화는 여성문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전에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매우 특수한 한 ‘개인’이었을 따름이었다. 청대 후기의 가학 문화는 여성 글쓰기의 확장에 있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문화는 사실상 청말에 이르기까지 여성 작가와 문집의 숫자를 늘리는데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계 중심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녀, 모녀 사이의 끊어지지 않는 정서적, 문화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

48) 장기는 상주사과의 대표자 중 하나였지만 상대적으로 형인 장해언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 그의 사 작품에 대한 평가이다. 현실적인 관직 진출에서도 그와 가족들의 일생은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다. 그는 11차례나 향시에서 낙방했고 60세가 넘어서야 미미한 관직을 얻는다. 그 전까지는 간헐적인 의술 활동으로 생계를 이었다. 그가 죽은 뒤에는 장씨 일가는 딸들의 그림과 서예를 팔아서 수입을 얻기도 하였다. 셋째와 넷째 사위 역시 과거에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막료, 가정교사 등으로 일생을 마쳤고 딸들은 혼인 후에도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그들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문집 속에서 가족들의 궁핍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 가족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음은 분명하다.

49) 이들의 《양호장씨사녀집》은 문화가족이 고도로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학의 지방주의를 보여주기도 한다. 張縉英의 시집에 쓴 題跋文에서 洪翰孫은 “우리 동네의 인재들이 융성하고 시인들이 대를 이어 흥성한다(吾邑賢俊林立, 詩人代興)”면서 왕채미, 庄盤珠, 惲珠 등 동향의 여성인들을 자랑스럽게 기록한다. 즉 이들은 여성 문화의 흥성 역시 그 지방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 문식성을 갖춘 여성을 근심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前代의 현실과 비교한다면 이 시기를 압도하는 이상적인 여성 이미지는 현실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독서의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재녀들이었다. 이러한 재녀 이미지는 현실 속에서 “재녀박명론”과 같은 전통 관념을 회색시켰을 뿐 아니라,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에 의문을 가져오게 하였을 것이다. 재현의 사실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5. 나오는 말

우리는 근대 이전의 여성들을 화석화된 하나의 동일체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역시 근대 이후 만들어지고 구성된 이미지일 뿐 실재했던 여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미지로서의 才女는 하나의 원형으로서도 존재하지만, 재현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 구체적인 양상과 해석 체계를 바꾸어 왔다. “婦德”이라는 표면적인 레토릭을 제외하면 청 후기에 재현된 재녀는 明末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호로 존재한다. 명말 이후 죽음과 불운의 예감으로 뒤덮여 있던 재녀들은 점차 친정 가문의 문화적 자랑이자 상징으로 탈바꿈한다. 이 여성들은 전기 속에서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정착되고 강화된다. 물론 그 과정은 기존의 여성 이미지가 전파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서하고 글 쓰는 여성은 문화적 이상이자 아이콘이 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 역시 前代와는 달라진다. 사람들은 문화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재녀들을 이상화하였고 여성에 대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才藝”, 즉 문학적 글쓰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능의 과시는 여성 이미지를 “三從”으로 대표되는 가족 관계의 범주 - 딸, 아내, 모친으로서의 정체성-에서 한 개체로서의 “개인”으로 확장시킨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家學과 여성 글쓰기의 연계는 이 시기 여성 작가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가족의 범주 속으로 귀속시킬 우려가 있다.

사실 家學 문화 속의 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전통 시기 여성작가의 한계로 종종 지적되는 “家族性”이라는 특징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다.⁵⁰⁾

본 고에서는 청 후기의 전기문을 중심으로, 재현된 재녀들의 이미지를 살펴보고 그 현실적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지면 관계상 본 고에서는 여성 교육, 독서와 관련된 재녀의 이미지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주로 “家學”이라는 청대의 학술, 문화적 특징과 연계시켜 살펴보았다. 재현된 여성 작가 이미지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층위에서의 해석 공간이 열려 있다. 가정 문화의 일원으로서의 여성 작가 외에도 혈연과 가족 관계에서 상당 부분 탈피한,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여성 작가 역시 청 후기 여성담론의 생성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도록 한다.

《參考文獻》

- 《青甫縣志》, 《丹徒縣志》, 光緒5年 (1879) 尊經閣本 影印本.
王端, 《自然好學齋詩集》, 同治13年 (1874) 刊本.
嚴蕊珠, 《露香閣詩存》, 嘉慶8年 (1803) 刻本.
夏伊蘭, 《吟紅閣詩鈔》, 道光己丑 (1829) 刻本.
沈善宝, 《名媛詩話》, 光緒丙子年(1876) 鴻雪樓刊本.
潘素心, 《不櫛吟》, 嘉慶5年 (1800) 本家藏版
任兆麟閱定/張允茲選錄, 《吳中女士詩鈔》, 乾隆己酉 (1789) 刻本.
完顏惲珠, 《國朝閨閣正始集》, 道光11年(1831) 紅香館刊本.
趙榮, 《瀟月軒集》, 咸丰 8年 (1858) 版.
張毓英, 《鄰雲友月之居詩》(《陽湖張氏四女集》中), 道光30年 (1850) 宛鄰書屋本.
張縉英著《澹籟軒初稿》(《陽湖張氏四女集》中), 道光30年 (1850) 宛鄰書屋本.
吳蘭畹, 《灌香草堂初稿》, 同治5年 (1866) 刊本.

50) 郭廷禮는 일찍이 〈明清女性文學的繁榮及其主要特徵〉(《文學遺產》2002年6月)에서 고전 여성 문학의 삼대 특징의 하나로 “가족성”을 꼽는다. 이러한 분석이 객관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족성이라는 특징을 한계로 규정짓고 공격하는 평론가들도 적지 않다.

- 孫德英《金魚緣》，光緒 癸卯年（1903），上海書局石印本。
- 수잔나 D.월터스/김현미 등 역.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99.
-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편 《동아시아여성의 기원 - 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이화여대 출판부, 2002.
- Lloyd E.Eastman/李升輝 譯,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중국사회경제사, 1550-1949》，서울: 돌베개, 2006
-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北京:商務印書館, 1925.
- 康正果, 《風騷與艷情》，鄭州:河南人民出版社, 1988.
- 艾爾曼著/趙剛譯, 《從理學到補學 - 中華帝國晚期思想與社會變化面面觀》，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5.
- 曼素恩(Susan Mann)/定宜庄, 顏宜葳譯, 《綴珍錄 - 十八世紀及其前後的中國婦女》，江蘇人民出版社, 2005.
- 王力堅, 《清代才媛文學與文化考察》，台北: 文津出版社, 2006.
- Dorothy Ko,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 Century China》Stanford Univ. Press, 1994.
- Susan Mann, 《The Talented women of the Zhang famil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2007.
- 졸고, 〈명말청초 여성의 어문활동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 독서행위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제40집, 2006.
- 郭廷禮, 〈明清女性文學的繁榮及其主要特徵〉, 《文學遺產》, 2002年 6月
- 梅家玲, 〈依違于婦德與才性之間-《世說新語·賢媛篇》的女性風貌〉, 王金玲/林維紅 主編, 《性別視角: 文化與社會》,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 楊劍利, 〈論清代婦女的社會地位 - 從清法典看〉, 《江海學刊》, 2006年 3月5期
- 郭英德, 〈明清時期女子文學教育的文化生態論述〉, 《中山大學學報》社科版, 2008年
- 羅時進/陳燕妮, 〈清代江南文化家族的特征及其對文學的影響〉,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2009年 8期
- 鄧紅梅, 《女性詞史》, 山東教育出版社, 2002.
- Susan Mann <The Education of Daughters in the Mid-Ch'ing Period>, 《Education and society in Late Imperial Chian, 1600-1900》, edited by Benjamin A.Elman and Alexander Woodsid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中文提要〉

隨着書寫女性的增加與才女觀念的流行，早慧少女的形象越來越受關注，同時傳統的才女福薄輪的說法也失去其效力。敘述女作家時，強調家學淵源，逐漸成爲該時代的敘述模式。少女的夙慧往往被歸結爲家學淵源于教育得當，而且人們對女性教育的觀念也有所變化。兼備文學才華和經史知識的女兒可以成爲一個宗族的驕傲，而新的才女形象的大量出現也與清中期以來的家學文化的發展緊緊聯系在一起。但我們還得注意，現實上的變化有時仍跟不上觀念上的變化。經過19世紀，女性開始公然表示在閱讀經典、詩文以外的讀物，而這樣的變化也牽涉到女性教育的現實與理想之間的距離。不少女性已具有識字能力，但還不及吟詠唱和的水平，自然會喜愛雜傳、彈詞小說等通俗性較強的讀物。這樣的變化背後可能還隱藏着惡劣的女性教育現實和美好的“才女”理想之間存在的落差。

關鍵詞：才女, 清 後期, 家學, 文化家族, 여성이미지

이 논문은 2010년 11월 18일에 접수되어 2010년 12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